

고린도전서 개관

1. 개요

고린도전서(1 Corinthians)는 사도 바울이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교리와 실천 양면에서 바로잡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. 성령의 은사, 성찬, 결혼과 독신, 우상제물, 부활 등 현실적 문제들 속에서 복음의 질서와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.

2. 저작 연대

- AD 54-55 년경,
 - 바울이 에베소에 3 년 머무르던 중(행 19 장)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보고받고 기록하였습니다.
-

3. 저자

- 사도 바울(Paul)
 -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(행 18 장)한 바울은 이 교회에 특별한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
-

4. 기록 목적

- 교회 내 분열과 파당 문제(1-4 장)를 책망하고
- 음행, 고소, 결혼, 우상 제물 등 도덕적·윤리적 문제에 대해 교훈하며

- 예배와 은사, 성찬 문제를 바로잡고
- 부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복음의 핵심을 수호하려 함

5. 단락 구분

구분	내용
1-4장	교회 분열 문제와 십자가의 지혜
5-6장	음행과 송사 문제, 몸의 거룩함
7장	결혼과 독신에 대한 바울의 교훈
8-10장	우상제물과 자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
11-14장	예배 질서, 성찬, 은사 사용의 원칙
15장	부활의 교리 - 예수 부활과 우리의 부활
16장	구제와 인사 - 교회적 연대의 실천

- 서신 전반에 걸쳐 복음의 실천적 적용이 두드러집니다.
- 단순히 교리 설명이 아니라 교회 안의 실제 문제에 대한 목회적 대답입니다.

6. 중심 메시지

“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,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.” (14:33)

“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.” (6:20)

고린도전서는 선언합니다: “거룩함이란 교리의 문제만이 아니라, 삶의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질서의 삶이다.”

7. 신학적 이슈

(1) 교회의 거룩과 교회론

- 교회는 세속과 타협해서는 안 되며, 징계와 분별을 통해 거룩을 지켜야 할 공동체입니다 (5 장, 11 장).

(2) 은사론

- 은사는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며,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것도 아님 (13 장). 질서 없는 방언 사용, 과시적 은사 사용을 경계합니다.

(3) 몸의 신학 (body theology)

- 몸은 성령의 전이며, 육체적 순결과 부활의 신학이 연결됨 (6 장, 15 장)

(4) 결혼과 독신

- 시대적 박해와 종말 신앙 속에서 결혼과 독신의 영적 의미를 균형 있게 제시 (7 장)

(5) 부활

-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 부정론이 있었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을 연결해 부활 없는 복음은 헛된 것이라 선언 (15 장)

8.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고린도전서 해석

(1) 교회란 무엇인가?

- 가시적 교회의 거룩성과 권징, 성례의 질서, 장로의 지도, 공동체 윤리 등이 개혁주의 교회론을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(5 장, 11 장).

(2) 성도의 자유

- 고린도전서는 기독교 자유와 절제의 균형을 가르칩니다. 개혁주의는 양심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형제 사랑과 덕을 위한 자기 절제를 교리적으로 정립해 왔습니다 (8-10 장).

(3) 은사의 목적과 사랑의 우선성

-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를 과시하고 경쟁하던 교회에 바울은 “더욱 큰 은사”는 사랑이라며 교회적 유익, 질서, 덕을 세움을 강조합니다. → 이는 개혁주의적 공동체 중심의 신학과 조응합니다.

(4) 성찬과 예배

- 고린도전서는 성찬 예식의 왜곡된 모습을 책망하며 바르게 성찬에 참여할 것을 명령합니다 (11 장). 개혁주의는 성례의 의미와 바른 시행을 중요시하며, 성찬의 공동체적 성격과 회개, 연합을 강조합니다.